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보금자리 출시

### 당정, 맞벌이 신혼부부소득기준 8500만원 상향 · 다자녀가구 1자녀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정부가 이르면 5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고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 보증금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주택 실소유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취약계층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 중도금 보증 확대 등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박찬대 · 김정우 · 유동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김윤영 서민금융진흥원장,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 등이 함께했다.

당정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금융은 의된 방안은 가계부채 종합대책(2017년 10월24일), 주거복지 로드맵(2017년 11월29일) 등 정부가 추진해 온 다양한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우선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저신용 ·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요건 완화 등 주택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기 위해 이들을 위한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기로 했다.

맞벌이 신혼부부는 당초 부부합산 7000만원이었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8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다자

녀가구의 경우 1자녀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2자녀 이상은 1억원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초 정부안은 2자녀는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3자녀 이상은 9000만원이었으나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해 보다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에서 1자녀부터 소득기준 완화 등 혜택을 주는 것을 요청했고 정부에서 이를 적극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자가 전세를 얻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4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및 보증료를 우대하는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신설할 계획이다.

당정은 전세보증, 정책모기지 등의 공급요건을 개선해 한정된 재원이 서민 ·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되도록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보증금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현행 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에서 각각 1억원씩 올려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그동안 주택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제공하던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로 한정하고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한정했던 보금자리론도 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택보유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다주택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금리상승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보금자리론을 약 5000억원 수준으로 공급하고 보다 많은 노인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해 안정적 주거와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인출한도를 기존 7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차주의 채무상환 책임을 주택가격 범위 내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대출도

확대해 금리상승, 고령화 등 위험 요인에 따른 서민 · 실수요자의 주거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신혼부부 4만2000 가구, 다자녀가구 6만4000 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리고 매년 8000명이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당정은 이번에 발표된 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해나가고 향후에도 적극적 협력을 통해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차주의 채무상환 책임을 주택가격 범위 내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대출도

## 국민연금공단, 신임 상임이사 임명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24일 신임 기획이사에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서기관을 역임한 박정배 전 식약처 부산지방식약청장, 연금이사에 김용국 전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장, 복지이사에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장을 역임한 나영희 전 (사)한국산업정보연구소 보건복지정책연구센터장을 임명했다.

신임 박정배 기획이사는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서기관, 사회서비스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정보연구소 보건복지정책연구센터장을 역임하여 다양한 실무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임 김용국 연금이사는 클리블랜드

주립대 경영학 석사 학위를 가진 공단 내부 출신으로서, 1987년 입사 후 인재경영실장, 고객지원실장, 대구지역본부장 등 공단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연금전문가이다.

신임 나영희 복지이사는 중앙대 사회복지와 석박사 학위소지자로서 한국산업정보연구소 보건복지정책연구센터장을 역임한 나영희 전 (사)한국산업정보연구소 보건복지정책연구센터장을 거친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

상임이사 직위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국민연금공단 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 등을 통해 추천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최수호 기자

## 전라북도 6차산업 우수제품 특별 판매전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와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전라북도 6차산업 우수제품 특별 판매전'을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에 걸쳐 서울MOLLO 마포점에서 진행한다.

24일 전북농협에 따르면 이번 '전라북도 6차 산업 우수제품 특별 판매전'에는 서울MOLLO 마포점에 입점해 있는 경영체를 대표해서 12개 업체가 80여

품목의 제품을 가지고 다채로운 특판전이 열린다.

또한 3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사은품 증정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도와 전북농협은 이번 판촉전을 통해 도내 6차 산업 우수제품이 수도권 소비자에게 인지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이다.

/최수호 기자

## “GM 군산공장, 정부가 책임 지고 대안 마련할 것”

### 홍영표 민주당 의원, 한국GM 입단협 잠정 협의 관련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한국GM과 관련해 “군산공장 문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반드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국GM 대책특별위원장이던 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국GM 입단협 잠정 협의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군산공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지금까지 협상하면서 노력했던 것이 군산공장 재가동이다. 끝까지 미련을 가지고 GM을 설득하려 했다”며 “공장을 가동한다면 정부가 훨씬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GM에서는 더이상 판매할 대가 없다고 해서 노조도 포기했고 정부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가 배리 앵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같이 논의할 때 지역 출신 의원이 (군산공장) 매각할거냐고 했더니 (앵글 사장은) ‘우리가 매각을 원한다면 빨리

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며 “그런 문제도 논의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먹튀’ 방지를 향후 과제로 꼽았다. 과거 부실로 인한 부채는 GM이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도 확인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적어도 10년 동안은 GM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라는 것”이라며 “이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확보하느냐가 마지막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부실로 발생한 GM 본사에 대한 부채가 남아있는 한 계속 부실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GM이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실히 갖고 있다. 출자를 하든 GM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역할론도 강조했다. 홍 의원은 그간 제기된 산업은행 책임론을 언급하며 “이번 협상 과정에서 (산은이 2대 주주로서) 범위 내에서 조금 더 회사 경영에 대한 권한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

### NH x 카카오페이통장 ‘인기몰이’

2개월만 신규개좌개설 5만좌 · 현재 12만좌 돌파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지난해 11월 출시된 NH x 카카오페이통장이 지난 1월 18일 출시 2개월 만에 신규개좌개설 5만좌를 넘어섰다.

또한 최근에는 12만좌를 돌파해 12만 2,484(전북은 4,382)좌가 신설되었을 정도로 고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NH x 카카오페이통장은 금융권 최초로 카카오페이와 제휴를 맺은 전용통장으로 카카오프렌즈 인기 캐릭터 ‘라이언’이 그려진 실물 통장(5만좌 신규개좌 개설을 기념하여 공급)까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이 통장은 카카오페이 출금계좌로 등록하여 이용할 경우, 최소 충전단위에 맞춰 미리 금액을 충전할 필요 없이 실시간 출금을 통한 간편 송금 및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카카오페이 거래 월 2회 이상 또는 올인뱅크 회원으로서 월평균 잔액이 5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연1.0%금리(일별잔액 100만원 이하까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수호 기자

### ‘Best 미소천사’ 전주우체국 남정희 주무관 선정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철)은 3월 ‘Best 미소천사’에 전주우체국 남정희 주무관을 선정하고 24일, ‘찾아가는 시상식’을 통해 표창패 및 인증패지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3월 ‘Best 미소천사’에 선정된 남정희 주무관은 평소 고객의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고객의 입장에서 우체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겸손한 태도로 최선을 다하는 직원으로 통한다.

김성철 청장은 “고객감동을 위한 최상의 비결은 행복한 직원이다.”며, “앞으로도 내 · 외부 고객과의 열린 소통문화 정착을 통해 출근하고 싶어 하는 직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Best 미소천사’는 전북지역 내 우체국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의 행복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고객만족을 적극 실천하는 직원을 선발, 격려하는 제도이다. /최수호 기자

기사제보 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명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